

# 6월 광고경기 전월 대비 보합세 유지

6월 국내 광고경기는 전월인 5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이후 KOBACO)는 국내 4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광고경기 예측지수(KAI)를 조사한 결과 6월 예측지수가 100.5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월별 KAI가 100을 넘을 경우 광고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은 광고비 감소가 예측됨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통상 6월의 경우 성수기인 5월보다는 다소 광고비가 감소하던 경향과는 달리 기업들이 6월에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수 엑스포 등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기대감과 7월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사전 마케팅 활동 강화 등의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KOBACO측은 설명했다.

매체별로는 지상파TV(99.9), 케이블TV(104.3), 라디오(99.3), 인터넷(114.0), 신문(84.1)으로 조사됐으며, 업종별로는 음료 및 기호식품(150.0), 화장품 및 보건의약품(146.2), 건설,건재 및 부동산(122.8), 관공서 및 단체(133.5) 업종에서는 강세가 예상되지만, 제약 및 의료(70.7), 패션(74.9), 가정용 전기전자(55.5), 수송기기(41.5), 유통(72.2) 업종은 약세가 전망됐다.

광고경기에측지수조사(KAI :Korea Advertising Index)는 방송광고비를 포함한 국내 주요 광고매체의 경기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광고산업 경기를 진단할 목적으로 매월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광고주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다. **KAA**

〈표 1〉 매체별 광고경기 전망



〈표 2〉 업종별 광고경기 전망

